

미얀마의 결핵실태

김성광

본 협회 결핵연구원 부설 복십자의원장

본문은 '96년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1주간 미얀마를 방문하여 현지의 결핵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사업의 타당성여부에 관한 의견을 적은 글이다.

●서론

전세계 인구의 1/3이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고 연간 약 800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며 연간 약 300만 명의 사망원인이 되는 결핵은 오랫동안 전세계적으로 질병과 사망의 주된 원인의 하나였으나 그 퇴치방법이 발견된 이후 지난 수십년간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HIV 감염이 만연된 나라들에서 결핵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단기화학요법의 효과가 밝혀졌으며 결핵이 개발도상국가들의 입장에서 비용대 효과의 효율이 가장 높은 보건정책 중의 하나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새로이 관심을 끌고 또한 그것을 퇴치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 중이다.

미얀마는 결핵과 HIV 감염이 만연된 동남아 국가 중의 하나로 결핵이 국가보건문제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에서도 이를 심각히 인식하고 장기계획을 세워 이에 대처하고자 하고 있으나 낙후한 경제사정으로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한 현실이다.

●본론

현재 미얀마의 수도 양곤 시내에 정부기관으로서 연방 결핵연구소가 있어 이곳에서 국가적인 결핵정책 수립과 남부 미얀마의 각 지방으로부터 의뢰되는 결핵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각종 검사실시와 HIV에 대한 검사 및 역학조사 그리고 결핵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기존의 시설이 50~60년대에 UNICEF의 지원하에 제공된 이후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설 및 기자재가 노후되고 부족하여 결핵의 진단을 위한 검사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진설명 - 왼쪽 이경구 국제협력부 제2부장과 홀라민트 미얀마 보건부 보건국장이 현지의 결핵관리 현황 및 지원사업의 타당성 등의 토의각서에 서명하고 교환하는 장면.
 뒷줄 좌로부터 김성광 본 협회 결핵연구원 부설 복십자의원장, 장석철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 참사관.

한편 양곤 시내에서 15마일 떨어진 교외에 결핵환자만을 위한 국립아웅산결핵병원이 있어 이곳에서도 여러가지 검사시설이 필요하나 현재 최소 용량의 엑스선 장치 1대와 현미경 1대가 있을 뿐이어서 환자진료를 위한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얀마 보건당국에서는 이번 기회에 기존의 연방 결핵연구소를 본 프로젝트에 의해 아웅산결핵병원 내에 짓게 될 새로운 결핵진단 및 연구센터로 옮김과 아울러 아웅산결핵병원의 검사시설로도 이용할 계획을 갖고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본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아웅산결핵병원내에 새로운 결

핵진단 및 연구시설이 들어설 경우 이 시설은 미얀마 남부지역을 총괄하는 검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국가결핵관리를 위하여 중요한 요소인 조직 구축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요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동안 부진했던 연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중심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아웅산결핵병원 내에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것과 아울러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 본 사업을 아웅산 사태 당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위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새로운 시설과 기존 아웅산결핵병원의 장기적인 전망에서 결핵외의 호흡기 질환까지도 진료 및 연구영역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검토해 보았으나 현재 미안마의 결핵문제가 다른 어떤 질병문제보다 시급한 실정이며 보건부의 고위층에서도 우선은 결핵문제 해결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본 시설은 결핵퇴치만을 위한 전용시설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시설의 건축은 미안마의 의료연구 시설에 있어서 새로운 모델이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대 설비를 갖춘 시설로 건축되어야 한다.

현재 본 시설의 건립 예정지인 아웅산결핵병원내의 여유 부지중에는 대체로 3군데 정도 건축이 가능한 공간이 있으나 3군데 모두 만족할 만한 조건을 갖춘 부지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미안마측에서 당초 선정한 위치가 다른 2곳에 비해 좀 나은 형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존의 건물과의 거리가 가깝고 뒤쪽으로는 경사가 심해서 축대를 쌓거나하여 땅의 기반을 다진후 건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미안마측에서 제의한 한가지 방법으로 땅의 모양(경사)에 맞게 반지하를 포함한 3층의 건물로 짓는 것은 연구소로서의 기능이나 미관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건물내부의 공간배치는 미안마측에서는 외래환자 진료와 연구 및 검사시설을 함께 수용하자는 의견이었으나 본 시설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진단 및 연구와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외래환자를 위한 진료시설까지 수용할 경우 건물내에 출입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건물의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본 건물의 공간배치는 연구와 진단 및 교육훈련 시설로서의 기능에 맞게 공간배치를 하도록 하고 외래환자 진료실 및 부대시설은 기존 아웅산결핵병원의 검사실이 없어지게 됨에따라 생기는 여유공간을 이용하거나 이전하게 될 아웅산 시내에 있는 기존 연구소 건물을 외래환자 전용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래환자의 90%에 달하는 아웅산 시내 거주환자들의 이용편의를 돕고 연구소의 분위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방안은 미안마측에서도 일부 제기된 의견이었다.

따라서 2층 건물을 지을 경우 1층에 결핵균검사를 위한 미생물검사 구역과 HIV 및 기타 검사를 위한 생화학검사 구역을 두고 2층에 결핵종사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강의실 및 실습실과 정보교환을 위한 세미나실 그리고 개인 연구실 등을 배치하면 좋을 것 같다.

미안마측의 건축전문가에 의하면 미안마의 건축관행 및 기후조건상 본 건물의 건축기간은 약 1년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국가의 결핵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보건조직과 그 관리이며 기술적인 요소는 그다지 높은 수준을 요구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미얀마의 결핵분야의 기술수준은 기본적인 역량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수생 초청은 본 시설의 운영에 참여하게 될 핵심적인 전문가 또는 기능적인 요원을 당기간 국내의 유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수시키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연수대상자들로서는 설비비용은 물론 유지관리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얻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이번 방문단에서도 제공에 난색을 표했던 이동검진장비의 경우 조작과 추후 관리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만약 이들 장비들이 제공될 경우 이런 시설의 관리운영을 맡은 담당자를 비롯하여 결핵검사 분야의 최신 기술습득과 장비조작을 익히기 위한 미생물 분야의 기능직 또는 전문직 분야의 종사자들이 연수대상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공될 건물과 장비의 원만한 설치 및 초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국내의 전문가 역시 본 시설의 가동초기에 단기간 파견하여 확인하고 지도하는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결론

오늘날 결핵은 전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일부 국가들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HIV의 급속한 전파와 함께 상황이 악화되고

■
결핵은 동남아시아의
경우 HIV 급속한 전파와
함께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있는 실정이며 미얀마의 경우도 20년전의 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전염성 결핵 환자가 약 25% 증가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20년전에 비해 1/3수준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하여 보면 얼마나 높은 증가율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기술, 경험과 역량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 미얀마에 이것을 제공하게 된 것은 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같은 결핵관리 지원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어 아웅산결핵병원 내에 결핵의 진단 연구를 위한 센터가 세워지면 미얀마의 국가결핵관리 사업은 중앙단위에서 계획을 수립, 실행, 감독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향후 미얀마의 결핵 퇴치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계획중인 프로젝트는 미얀마의 결핵문제의 심각성과 외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현재의 여건 및 우리의 역량들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적절하며 뜻깊은 사업으로서 원만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